

한·영 안보·경제협력 최고수준 격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

尹·수낙 정상회담... 북 핵·미사일 규탄, 국제 분쟁 해법 공감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FTA 개선 협상 개시 등 합의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장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를 끝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 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에게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변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을 추진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변영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무역·투자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공망 대화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쟁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정경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러시아 도움 있었을 것으로 판단"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보고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도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극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

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지 있는 '서브미터' 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궤상을 활용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며 "다만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위 통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 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로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날 국방위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족행위를 할 경우 기준 '4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을 '3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5%...2주만에 1%p 올라

NBS 조사...국힘 34%·민주 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56%였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 중의당 4%,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0%였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보다 3%p 올랐고, 민주당은 1%p 내렸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4%로 동률이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정부·여당 지원률은 2%p 올랐고, 견제론은 5%p 내렸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주류 세력에 수도권 혐기 출마나 불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45%,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